

홍영표 탈당... 친문·비명계 구심점 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판 민주연대 구성 시점 '관심'

3선 중진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탈당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잔류 결정에 홍 의원이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날선 소리를 내뿜었다.

그는 "영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가 지"라며 민주당 공천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회견 직후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민주당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해 봤다"며 "제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통보"와 관련해서는 "받았다. 제가 안들어 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 당연히 받았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들었다"는 말로 현역 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비교했다.

홍 의원은 총선을 35일 앞두고 신당 창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짚고 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박영순·김종민 의원들과 함께 민주연대 구성을 주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6일 현재 서울 강북을 박영진 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민주당교육연수원장 등을 비롯해 19개 지역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7~8일 광주 서구를, 8일~9일 의정부갑·을 등 13일까지 경선 일정이 줄줄이 확정돼 있다.

특히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실시하는 서울 노원갑 고홍진·우원식 의원, 경기 부천갑 김경협·서영석·유정주

의원, 안산갑 전혜철·양문석 전 지역위원장의 경선 결과에 정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정가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가 민주당 분란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소위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공직선거법 57조에 의거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은 총선에 재도전하지 않는다.

다만 현역들과 지역위원장들은 일정 지역 조직을 확보하고 있어 탈당이 가속화 되면 민주당 풀뿌리 지역 기반도 '물갈이'가 된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나 문 전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들과의 연대만 내비쳤지만 정세균계 좌장인 김영주 의원의 탈당 등을 염두에 뒀을 때 민주당 고문들에게 러브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 문희상 고문 등은 아직 회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윤 기자

김병욱 의원, 민주당 경기도 총선 지휘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김병욱(분당을, 재선) 국회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병욱 직무대행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과 가천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성남 분당을에 지역구를 둔 재선 국회의원(국도교통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이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국회 정무위 간사

를 역임한 금융경제전문가이자 정책 통으로 당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의 임기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종료 시점이며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60개 선거구의 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며 경기도 총선 전체를 승리로 이끌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총선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심판"이라며 "경기도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큰 경고이자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정부를 심판하고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인창 기자



경기도부천시군의장협의회는 6일 양평 더 힐하우스에서 제 1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 기초의회 의장 뭉쳤다

제126차 정례회의 열어 지나해 성과 함께 살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하식)는 6일 양평 더 힐하우스에서 제 1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 의장을 비롯해 6개 시군의회의 의장(성남시 박광순 의장, 남양주시 김현택 의장, 광주시 주임록 의장, 하남시 강성삼 의장, 양평군 윤순옥 의장, 여주시 정병관 의장) 및 양평군 전진선 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례회의에서는 △제1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협의회 회비 수입·지출내역 △2024년 공무 국외출장결과 보고 등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각 시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차기 정례회의는 성남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첫 정례회의를 통해 지나해 성과를 돌아보고 각 시군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나 현안에 대해 공유하며 경기 동부권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일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국힘 도의원, 음주운전"

이영희 도의원 비판 성명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국민의힘 소속 이영희 경기도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형사 입건된 것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도높게 사퇴를 촉구했다.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

지 않았지만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여당의 폭압에 질식한 민심이 도처에 아우성이고 한반도의 미래가 바람 앞 등불 처럼 위태로운데 지금이 팔자 늘어지게 술이나 마시고 있을 때인가"라며 "이 의원은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헌신적

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시점에 의정정책추진단으로 용인지역안 정책발굴 정담회에 참여하며 국 민을 우롱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현장 검거된 공직자가 지역 발전을 위해 무슨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되 물었다.

도당은 또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

고 그저 의정활동 실적이나 올리는 것에 혈안된 후안무치함에 낫 뜨거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 의원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막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더는 경계망동하지 하지 말라"며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경기도민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신규아파트 조성되는데... 버스 불편"

나상길 인천시의회 의원 지적 유정복 "적기 버스노선 투입"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나상길(민주당·부평4) 의원은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버스노선이 대규모 주택개발 지역의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000·2009·2016·2020년 등 총 4회에 걸쳐 대규모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노선 부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인천시는 신규아파트 조성과 입주 상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스는 이전의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어 신규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신규아파트 조성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버스노선 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공동주택 신규 입주계획 등 교통수요를 사전 분석해 적기에 버스노선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의 수요를 분석해 추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3선' 김성태, 김포 총선 지원사격 나서

김포 총괄선대본부장 임명 "김포·서울 통합 시계 속도"

국민의힘 김포시갑·을 국회의원 후보인 박진호(갑)·홍철호(을) 후보는 5일 두 지역의 선거를 진두지휘할 총괄선

대본부장에 '서울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박진호·홍철호 후보는 이날 "김포이웃 지역인 서울 강서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성태(사진) 전 의원이 김포 갑·을 지역구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게 됐다"

고 밝혔다.

박진호·홍철호 후보는 "이제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혁신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박진호·홍철호와 김성태 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는 '서울 통합'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수범하겠다"고 했다.

박진호·홍철호 후보는 재차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게, 서울이 김포가 될 수 있게 박진호·홍철호와 김성태 본부장이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호·홍철호 후보는 "지금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시해 드리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서 실천하겠다"고 했다.

박성삼 기자

"미사섬 일대 관광자원 발굴"

김도식 예비후보



계된 관광문화 상품으로 △강변길 따라 기차여행 △하남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검단산~예봉산 케이블카 조성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길 따라 기차여행'은 검단산 자락인 팔당댐의 옛 도미나루(도미부인의 전설이 담긴 나무터)에서 출발해 미사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열개 열차로 볼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관광사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대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리는 공약"이라고 제시했다. 구학호 기자

하남시 을선거구(미사1·2·3, 덕풍3)에 출마하는 서울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김도식(56·사진) 예비후보가 민선8기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일드와 연계된 '하남시 관광문화 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 예비후보는 3일 자신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하남시를 관광·문화 단지로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익도 함께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하남시 관광·문화벨트' 구축은 '미사섬~검단산과 연

장성민 예비후보



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살려 안산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안산을 다시 제조업과 경제중심지로 확실히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뤘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안산이 지난 10여 년간 쇠퇴의 길로 가고 있으며, 5만명가량이 안산을 떠났으며, 불야성을 이루던 상권은 낙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장성민(사진) 국민의힘 안산시갑 예비후보는 6일 오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선언 및 정책공약 1호를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농지와 갯벌뿐이었던 반월에 혁신적인 공업 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았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초일류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과 인도 시장으로 뻗어나갈 중요한 경제적 요충지인 안산의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안산에 이민청 설치 약속

고잔역 출근길서 시민과 스킨십

고영인 예비후보



제22대 총선 안산(병) 예비후보로 나선 고영인(사진) 의원이 6일 오전 고잔역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오는 13~14일로 예정된 안산을·병 통합경선을 앞두고 안산(을) 지역 유권자와 접촉을 본격화한 것이다.

안산(병) 전략공천 및 안산(을) 지역에서의 3인(고영인·김철민·김현) 경선을 거부하며 탈당을 시사했던 고 의원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번복 이후 입당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공천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야 한

다는 대원칙을 갖고 불가피하게 당의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히며 통합 경선에 참가하기로 한 바 있다. 인사를 마친 고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의 부당함에 공감한 지역의 당원들과 시민들이 저를 지켜주고 민주당이 인정해 시작된 경선이다. 전례없는 방식에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을 더 자주 찾아뵙 예정이다"고 말한 후 "누가 안산재도약,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적인자인지 알리며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강승수 기자